

고흥시민단체 “전 군수 구속하라”

청정고흥연, 고흥경찰서 앞 엄정수사 촉구 집회 군민 1천명 지난 2월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도

청정고흥연대회의가 ‘고흥군누적부패 청산 행정비리 책임자 박병종을 구속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청정고흥연대회의는 19일 오후 고흥경찰서 앞에서 “수사중인 사건 모두와 연루된 행정비리 책임자인 박병종을 더 이상 예우하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2월 15일 고흥군민 1,000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순천지검에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고발했다.

박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2015년 2월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9,000만 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가 보상금 2억8,700여만 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증으로 지급해 고흥군에 손실을 입힌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설사에 공원부지 3만2,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000여만원보다 저렴한 8억9,000여만 원에 팔아 무려 5억8,700여만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청정고흥연대회의는 “주민을 기

만하고 행정력과 재정적 손해를 발생시켰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고흥군의 비리 사건 정점에 박병종 전 군수가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박 전 군수는 막말과 욕설로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모멸감을 주

고, 반대하는 마을과 주민,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행정을 반복해왔다”면서 “행정기관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 주민이 주인 되는 민주적인 공동체로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군의 누적된 행정부패 수사를 촉구했다.

고흥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흥군 청사 기획실과 재무과, 건설과 등 3개 부서에 경

찰 20여명을 보내 수변 노을공원 부지 보상서류 허위 작성과 선별리 복합레저관광 시설 부지 거래 건에 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문서 등을 확보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 담당 공무원은 대상 사업검토를 태만히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 위반과 함께 같은 법 제69조 제1항 2호에 해당돼 징계처분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청정고흥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고흥경찰서 앞에서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구속 수사 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18일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정기후원 기부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 /광양시 제공

광양 어린이재단 정기후원 릴레이 ‘붓물’

1세대 1구좌 이상 갖기 운동 총 22개 단체 참여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1세대 1구좌 이상 갖기 정기후원 릴레이’에 지역 단체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18일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강용재 어린이보육재단 상임이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후원 기부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광양농협(허순구 조합장)과 동광양농협(이명기 조합장), 광양동부농협(배희순 조합장), 진상농협(최진호 조합장), 다압농협(김충현 조합장), 광양원예농협(장진호 조합장)에서 보육재단에 571개의 정기후원 구좌를 전달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단체로 (사)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이기욱 회장)와 동광양상공인회(이경재 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연합회(도미희 회장), (사)광양도심순가꾸기위원회(소오섭 회장), 광영상공인연합회(백정일 회장), (사)광양시행동하는 양심청년연합회(김은광 회장)를 지정했다.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정기후원 구좌를 모집·안료해 다음 단체에 바통을 넘기는 기부 파도타기를 실시한다.

지난해 2월 광양시민단체연합(대표 박주식)이 최초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11개 단체가 완주해 5,910구좌를 후원했다. 현재 11개 단체가 릴레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보육재단은 2022년까지 5만 구좌를 목표로 기부 릴레이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모여진 후원금은 전액 지역 영유아 보육사업에 쓰인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보성 차 미국·중남미 시장 노린다

멕시코 방문 노스게이트와 업무협약 체결

보성군이 지난 18일 미국 현지 수출 전문 업체 노스게이트 트레이딩의 멕시코 과달라하라를 방문해 보성 차의 미주 지역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노스게이트 트레이딩은 라틴계 노스게이트 곤잘레스의 자회사로 1980년에 설립된 슈퍼마켓이다. 현재 미주 40여개의 매장, 7,5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연간 약 1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보성군은 지난 2월 보성 차 미주 시장 개척단인 LA를 방문해 1차 수출상담회를 가졌으며, 4월과 5월에는 노스게이트 트레이딩 측에서 보성군을 방문해 2차 수출상담회를 갖고 차밭과 사업장을 답사해 보성 차에 대한 신뢰를 쌓고, 이번 방문에서 업무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 멕시코 방문은 노스게이트 트레이딩과 연계해 현지 음료, 식품 회사 등의 방문을 통해 보성녹차 멕시코 수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성군은 연간 매출 약 26조 규모로 고가의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프리미엄 마켓인 텍사스 주



의 센트럴 마켓에 고품질 보성 차를 입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성 차 미주 및 중남미지역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 및 수출입 업무 상호협력, 보성 차 미주 및 중남미 지역 판매확대를 위한 판촉활동 협력, 보성 차 및 우수 농특산물 수출입 추진, 미국 및 중남미 시장 내 보성 차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양 측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1일 LA에서 현지 언론인 8명과 간담회를 가진 후 LA 총영사관에 들러 김완중 총영사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보성 차 우수성을 알리고 미주 지역 외 보성 차 수출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순천 마그네슘 클러스터 새 불씨 살리다

마그네슘상용화센터 구축 국비 18억4천만원 반영

순천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69억원을 투입해 전남테크노파크 생산동에 구축될 예정인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020년 국비 18억4,000만원이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순천시가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두 차례 추진했으나 과학기술부의 기술성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또한 포스코가 적자 이유를 마그네슘 판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기대가 높았으나 마그네슘 사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을 두 차례 찾아 면담하는 등 국고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20년 국비에 반영됨으로써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포스코는 포스코에 서한을 보내 마그네슘 판매사업을 3년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포스코 마그네슘 판매공장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참

여할 국내 마그네슘 관련 기업 2곳에 대해 유치 활동에 들어갔고, 지난 18일에는 신소재기술산업과 지원센터에서 9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가 구축되면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여타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순천시는 최근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앞서 9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순천시 제공

고 이용재 서기관 유족 순천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순천대는 최근 고 이용재 서기관 유족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이용재 서기관은 1983년부터 약 30년간 순천대에 재직하며 비서실장과 학사지원과장, 취업정보과장, 교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2013년 6월 자병으로 명예 퇴직한 뒤 같은 해 10월 영면했다. 대학본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고영진 총장과 고 이용재 서기관의 부인 김효순 여사, 아들 이정원 씨를 비롯해 신은주 교무처장과 정동호 학생처장 등 대학 보직자와 발전지원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효순 여사는 “생전 순천대에 몸담았던 고인은 ‘인재 육성이 순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늘 강조했다”며 “발전기금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진 총장은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고인의 정신을 받들어 ‘이용재 장학금’ 역시 학생들을 위해 건실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클릭! 고흥 소식



민감통 경찰청장 구례경찰서 격려방문

구례경찰서는 최근 민감통 경찰청장이 구례를 찾아 100억대 규모 부장대출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경찰관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구례경찰서 수사과

박상미 순경은 적극적인 수사와 탐문을 통해 부장대출을 실행한 감정평가사 및 금품을 수수한 대출팀장 등 총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혐의로 검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보성 검백면 여성자원봉사회 밑반찬 나눔행사

보성군 검백면여성자원봉사회는 최근 여름 맞이 밑반찬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경로당(23개소)과 어려운 이웃(20세대)에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정현순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검백면여성자원 봉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고흥 새내기 공무원 올바른 공직관 확립 교육

고흥군은 최근 군청 우주홀에서 8~9급 공무원 23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관 확립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 새내기 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사회의 특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